소비자원-국표원, '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' 안전주의보 발령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1. 09 16.)

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-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6일 **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**했다.
  - 영·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.
-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,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,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,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.
  -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* 해외,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로 인해 다수 사망사고 발생 [호주(ACCC), Button Batteries Issues Paper, '19.8]]

단추형 전지	
두께 1~11 mm, 지름 32 mm까지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전지 · (전압) 리튬 포함 전지 3.0V, 리튬 포함되지 않은 전지 약 1.5V	

- 단추형 전지 '삼킴 사고'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**'0~3'세 영·유아에게서 주로 발생**한다.
  -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('17.1.~'21.7.)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
  - '0~1세' 사고가 166건(65.4%)으로 가장 많았고, '2~3'세 52건(20.5%), '4~6'세 27건(10.6%)의 순임.
-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중 상당수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주의·경고표시, 안전설계 등이 되어 있지 않아, **안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.**
-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  -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, 주의·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할 예정
  - 단추형 전지(리튬)의 경우는 주의·경고 표시 사항, 어린이보호포장을 포함하여 KS표준을 2021년 9월 14일 국제표준과 일치하여 개정 고시함(일차전지-제4부: 리튬전지의 안전성 (KS C IEC 60086-4)